

전국 최고 청렴 도시 '우뚝' 대학과 지역 동반성장 기대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 이장호 교수 취임

군산대학교 이장호 교수(57, 산학융합공과대학 기계융합시스템 공학부)가 18일 군산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3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이다.



이장호 총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다"며 "전 공직자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대표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장호 총장은 "다 함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군산대를 비전으로 ▲대학자체 수익구조 창출 ▲재정확충의 다원화 ▲총장 직속 '튼튼한 재정' 전략팀 운영 ▲지자체 및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을 위한 서비스 및 교류

활성화 ▲융복합 지역 특성화 교육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시스템 전환 ▲학사구조 개편 및 교육환경 개선 ▲미래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장호 총장은 "다 함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든든한 군산대를 비전으로 ▲대학자체 수익구조 창출 ▲재정확충의 다원화 ▲총장 직속 '튼튼한 재정' 전략팀 운영 ▲지자체 및 기업과 파트너십 강화 ▲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을 위한 서비스 및 교류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최고 성적 달성... 공직사회 청렴 문화 안정적 정착

익산시가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며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시는 역대 최고 평가를 받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된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전국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익산시는 전국 최고의 깨끗한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도내 최초로 독립적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올해도 청렴도시 익산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정책으로 깨끗한 공직문

화를 조성해 나간다. 시는 컨트롤타워인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형 정책'이 확대된 2022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신뢰받는 반부패 활동' 정책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 지난해 외부청렴도 상승으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을 활용해 부패방지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전 직원을 투입해 착공, 계약, 진행, 준공 후까지 전 단계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현장 비리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행정력

을 집중한다. 이 밖에도 '청렴 생활화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화면 보호기 배포,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반부패 청렴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정현을 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다"며 "전 공직자가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국 대표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현장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조직 내부 직원 간에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올해에도 청렴 문화가 익산시 모든 곳에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합동회의 개최

실무추진위원회 활력이지 다짐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설팅센터(GSCC)에서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의 실무추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기업 노사관계자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상생협의회의 실무추진위원 50여명이 참석해 이뤄졌으며, 총괄진행사항 보고, 기업별 로드맵 발표, 연차보고 및 수정사업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군산형 일자리 중점사항으로는 참여기업 모두가 군산에 동지를 틀고 본격적인 실행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기 안착을 위한 세심한 관리와 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에 기초한 이행사항들도 차곡차곡 진행될 예정으로 임금관리위원회 및 공동교섭단 활동을 통해 적정임금 및 선진형 임금체계 구축을 도모해 나가고,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사전제반사항을 이행하고 미래차관련 국가공모사업 및 R&D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가 1년이 경과한 후 진행되는 연차보고를 준비하는 과



군산시는 군산새만금컨설팅센터(GSCC)에서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의 실무추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에서 수정 사업계획 논의도 시작했다. 주요 변동요인은 참여기업 조정과 최근 명신의 관료화에 따른 신규 계약 물량을 반영하고, 이 밖에도 참여기업들의 연차별 계획을 현 상황에 맞게 현행화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구체화된 변경사업계획을 가지고 산업부의 변경심의절차를 밟아 4월 말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참여기업(명신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은 지정

후 1년 동안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성공적 추진 의지를 다짐하면서 앞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민의 희망인 군산형일자리라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생의 의지로 함께하고자 한다면 못할 일은 없을 것이며, 시 차원에서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확대 운영

익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공동체를 활용한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올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곳을 확대한다. 최근 모집공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마을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만 6~12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직접 돌보며 지역 특성

에 맞는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황등면 자율방범대 2층과 모현동 2면 한세상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어양초 옆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맞은편 등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곳이 추가되면 총 6곳으로 확대된다.

'우리마을 돌봄공동체'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가는 익산시민의 특새 돌봄 수단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가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 5,000원씩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지원금을 포함해 1,200만 원이 적립돼 입사 2년 후 1,200만원+이자만큼 만기수령이 가능한 사업이다.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제기업 기업

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34세 이하 청년이 군산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기한은 21일부터 지원대상 확정(54명)시까지이며, 공제위탁 운영기관(6개소)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제위탁 운영기관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재활용품 교환기준 완화

군산시는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교환 사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교환기준을 대폭 완화해, 교환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경제성 높은 폐지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사업이다.

시는 교환기준이 복잡해 시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교환기준을 완화해 시민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기존 복잡했던 종이팩 용량을 1000ml 단위로, 폐건전지·아이스팩 kg기준을 완화했다. 교환기준은 종이팩 용량 1000ml 미만 20매, 화장지 1롤, 1000ml 이상 10매, 화장지 1롤, 폐건전지는 500g 기준 종량제 봉투(10L) 1매, 아이스팩은 2kg 기준 종량제봉투(20L) 1매를 지급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 여산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실시

익산시는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산면 일원 재해위험지구 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국비 380억원을 투입해 침수 피해 지역인 여산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배수로와 우수관 정비, 펌프장 및 저류지 신설, 지방하천인 강경천 제방 보축, 소하천인 담차골천, 유성천 정비, 저수지 정비 등 종합적인 방재시설물 정비가 실시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7일 여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사가 추진되는 지역은 지난 2010년 내린 폭우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당시 응급복구는 진행됐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익산=이득훈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